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10 pp. 556-563,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10.55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 분석

서보경, 정추영*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nalysis in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of according to Face-to-face Tutoring and Mixed non face-to-face and Face-to-face Tutoring

Bo-Gyeong Seo, Chu-Young Jeo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요 약 본 연구는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를 비교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와 P시 소재 2개의 전문대학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면 튜터링의 튜티 36명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의 튜티 38명으로 총 74명이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PASW 23.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 test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 (t=4.69, p<.001)와 자기주도학습능력 (t=5.0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인지도 (t=3.48, p<.001)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대면 튜터링이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수준 향상을 위한 튜터링 운영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comparatively analyze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resulting from face-to-face tutoring and mixed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tutoring program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3 and June 9, 2023. The participants were 74 first year nursing students in D and P City who were assigned to the face-to-face tutoring group (n=36) and the mixed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tutoring group (n=38). The tutoring program comprised a total of 10 session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he t-test, χ^2 test, and the paired t-test with the PASW 23.0 program. After participating in the tutoring programs, a difference was observed in learning motivation (t=4.69, p<.00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5.05, p<.001),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t=3.48, p<.001) of the face-to-face tutoring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face-to-face tutoring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he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design and implement programs to improve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he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Learning Motivation, Nursing Student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utoring

*Corresponding Author : Chu-young Jeong(College of Daegu-Health)
email: jcy0902@dhc.ac.kr
Received August 16, 2023 Revised September 11,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1]. 한편, 대학교육이 취업중심의 성과지향을 강조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학업 스트레스 및 학습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저하되고 있다[2].

특히 대학 신입생의 경우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서의 학업스트레스 경험은 무력감과 우울감 등으로 학습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3]. 이에 다수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학교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4]. 튜터링은 2003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5].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식 공유와 전이를 실천하는 학습 형태로[6],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는 튜티는 예습의 기회가 되고, 학습법을 체득할 수 있으며 학습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7]. 따라서 튜터링의 학습효과 및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튜터링에 참여한 대학생의 학업성취도[5,7,8]의 영향 요인으로 대인관계[9], 학습동기[8,9]와 자기주도학습능력[9,10]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11,12]등 다양한 변수가 보고되었다. 한편 COVID-19 이전의 튜터링 관련 연구는 대면 튜터링으로 진행되었고, 튜터링 집단과 미실시 집단 간의 비교연구[6,13]와 특정 튜터링 방법을 실시한 후 효과를 확인한 중재연구[8,9]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튜터링에 참여한 튜터[14,15]와 튜티의 경험[16]에 대한 질적 연구가 보고되었다.

반면, 학습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COVID-19 이후 튜터링 관련 연구는 대면 튜터링 참여 여부 등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 비교연구[12]와 비대면 원격화상 튜터링에서 튜터의 경험[17]과 튜티의 경험[18]에 대한 질적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튜터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12,17,18].

오늘날, COVID-19 발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학의 수업 운영지침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블렌디드 형태와 대면 수업 중 교수자가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COVID-19 이후 수업 형태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에 비해 대면 수업 수강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19], 교수·학생과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튜터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COVID-19 이전 대면 튜터링과 COVID-19 이후 비대면 튜터링에서 교과목 성적 향상을 비교한 Yoo와 Kang[21]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에 현재 각 대학의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권장하고 있는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을 각각 진행한 후 두 집단의 튜티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튜터링 관련 선행연구에서 학습자의 학습 후 성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학업성취도 변수는 교과목 평점을 튜터링 효과로 특정하여 보는 것은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성인학습자일수록 실제 성취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한[23]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인 학업성취인지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튜티 학습자인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실시 전·후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하고 튜터링 실시 후 학업성취인지도를 확인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전공적응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튜터링 운영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인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

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를 확인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P시에 소재한 2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 중 대학이 공지한 튜터링에 신청한 학생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 중에서 편의 추출하였다. 각 대학은 대면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중 각 튜터링 그룹이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각 대학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튜터링 신청 학생 중 2개 이상의 튜터링 신청 학생은 제외하였다. 튜터링 시행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소요시간,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점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전체 연구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였다. 튜터링의 튜터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으로 신청한 교과목 학점이 A이상인 자 1명을 선정하였고, 튜티는 간호학과 1학년으로 해당 교과목의 학습 튜터링을 희망하는 학생 6~7명으로 구성하였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총 10주 동안 매주 1회 60~90분씩 총 10회기로 총 13시간을 운영하였다.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1회기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10회기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은 대면과 비대면을 교대로 진행하여 총 10회기 중 대면 5회기, 비대면 5회기로 운영하였다. 튜터링 프로그램 종료 후 연구대상자인 튜티 74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 수 산정을 위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선행연구[24]에서의 표본 수 22명을 기반으로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를 0.8로 설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28명이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 40명을 목표 인원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각 집단별 40명 이었으나 연구 기간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대상자가 대면 튜터링 집단 4명,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에서 2명으로 최종 분석 자료는 대면 튜터링 집단 36명,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 38명으로 총 74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개인이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는 힘이나 경향성을 말한다[6].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Kim[25]이 개발한 도구를 Chang[2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ng[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사전 .89, 사후 .93이었다.

2.3.2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여 해결하기 위해 계획, 자기조절, 점검, 성찰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7].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Lee 등[28]이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누리정책에 의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의거하여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 도구는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3개 하위요인의 총 4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Lee 등[28]의 도구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사후 Cronbach's α는 .90였다.

2.3.3 학업성취인지도

학업성취인지도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을 통해 학업을 성취한 것으로 인지하는지 스스로 평가한 정도를 말한다[22].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Yang과 Hwang[29]이 수정·보완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게 인지함을 의미한다. Yang과 Hwang[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는 기술 통계를,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x^2 tes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튜터링 프로그램 실시 후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의 차이는 t-test 및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대면 튜터링 집단이 20.8세,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은 21.9세이었다. 성별은 대면 튜터링 집단에서 남학생 5명(13.9%), 여학생 31명(86.1%)이며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은 남학생 8명(21.19%), 여학생 30명(78.9%)이었다. 참여동기는 '중'이, 다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없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대면 튜터링 집단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 간에 차이가 없어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의 차이 검증

튜터링 프로그램 전과 후에 따른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의 점수는 대면 튜터링 집단이 프로그램 실시 전 3.31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86점이었고,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이 3.33점에서 3.57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학습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69,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점수는 대면 튜터링 집단이 프로그램 실시 전 2.89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47점이었고,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이 2.91점에서 3.10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5, p<.001).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 실시 후 두 집단의 학업성취인지도의 점수는 대면 튜터링 집단이 4.68점이었고,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이 4.22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

Table 1. Homogeneity between the Two Groups (N=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F. tutoring (n=36)	M. tutoring (n=38)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20.80±1.42	21.92±2.91	12.09 (.147)
Gender	Male	5 (13.9)	8 (21.1)	2.38 (.105)
	Female	31 (86.1)	30 (78.9)	
participation motivation	High	11 (30.6)	10 (26.3)	0.42 (.768)
	Middle	20 (55.6)	22 (57.9)	
	Low	5 (13.8)	6 (15.8)	
Other tutoring program	Yes	1 (2.8)	2 (5.3)	3.48 (.098)
	No	35 (97.2)	36 (94.7)	
Learning motivation		3.31±0.40	3.33±0.41	0.15 (.574)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2.89±5.43	2.91±6.35	1.08 (.155)

F. tutoring=Face-to-face tutoring group; M. tutoring=Mixed non face—to-face and face-to-face tutoring group

Table 2.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after Treatment (N=74)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b (p)
		M±SD	M±SD	M±SD	
Learning motivation	F. tutoring (n=36)	3.31±0.40	3.86±9.48	0.55±5.05	4.69 (.001)
	M. tutoring (n=38)	3.33±0.41	3.57±4.81	0.24±3.39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 tutoring (n=36)	2.89±5.43	3.47±6.46	0.58±4.39	5.05 (.001)
	M. tutoring (n=38)	2.91±6.35	3.10±4.61	0.19±4.52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F. tutoring (n=36)	-	4.68±0.21	0.46±0.24	3.48 (.001)
	M. tutoring (n=38)	-	4.22±0.28		

b=Between group; F. tutoring=Face-to-face tutoring group; M. tutoring=Mixed non face—to-face and face-to-face tutoring group

단 간의 학업성취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48, p<.001)(Table 2).

4. 논의

본 연구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튜터링 운영방안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튜터링 실시 후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의 학습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의 점수 차이는 대면 튜터링에서의 0.55점이며,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서는 0.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튜터링에서 학습동기는 학습을 유지하게 하는 주된 변수로 보고한 Yu[8]와 Jeong[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며, 또한 선·후배 간 튜터링에서 학습동기가 향상됨을 보고한 Na[12]의 연구와도 동일한 맥락이다. 한편 비대면으로 진행된 튜터링에서도 학습동기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Yeon과 Ahn[30]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소그룹 학습인 튜터링이 학업 성취를 위한 성공적인 촉진제 역할을 하는 동기가 부여되며, 튜터링 활동을 계기로 학습동기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동기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나타냄을 설명할 수 있어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튜터링 운영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 사전 점수는 대면 튜터링 집단 3.31점으로 나타났으며,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 3.33점으로 간호학과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Han[31]의 연구에서 3.07점과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Kang과 Kim[32]의 연구에서 2.70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면 튜터링 집단의 튜터링 후 학습동기 점수는 3.86점으로 Park[3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비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후 학습동기는 3.57점으로, COVID-19로 대면・비대면 혼합 이론 수업을 진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3]의 연구에서 3.89점으로 보고된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에 의한 혼합 이론수업과 선배 튜터에 의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의 학습동기의 결과로 학습유형에 따른 차이로, 학습유형에 따른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는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운영 튜터링의 집단의 튜티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학습관련 변수의 사전사후 차이를 확인한 연구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튜터링 운영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튜터링 운영 형태에 따른 다양한 학습관련 변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튜터링 실시 후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점수 차이는 대면 튜터링에서의 0.58점이며,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서는 0.1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튜터링에 대한 효과성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강조한 Jeong[9]과 Hwang[1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튜터링 참여 집단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음을 보고한 Park과 Cha[3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반면, 대면으로 운영한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11]에서는 튜터링 참여 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Kwag과 Woo[11]의 연구는 간호학과 이외 타 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연구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면 튜터링이 선배 및 동료 학습자 간 학습정보를 공유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동기가 향상되었고, 튜터링에서의 학습계획, 실행, 평가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대면 튜터링 실시 후 3.47점으로, 대면 튜터링에 대한 Kwag과 Woo[11]의 연구에서 3.2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실시 후에는 3.10점으로 Kwag과 Woo[11]의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면 튜터링 운영이 비대면 튜터링 운영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일부 비대면 원격 수업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았으며[35], 원격 또는 동영상 제작 콘텐츠 활용의 비대면 수업 모두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강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32]. 이처럼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대면과 비대면의 튜터링 및 수업의 교육적 효과의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

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대면, 비대면,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튜터링 실시 후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의 학업성취인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인지도는 대면 튜터링 집단 4.68점,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 4.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면수업이 비대면 원격 수업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19,33].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간 총 15회, 30시간의 튜터링을 진행한 연구에서 튜티의 학업성취인지도는 4.02점으로[29], 본 연구의 대상자는 두 집단 모두 Yang과 Hwang[29]의 연구보다 높은 학업성취인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튜터링 학습을 통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선배 튜터와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전이와 핵심 지식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학업성취에 대한 자기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의 실제 학업성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학업성취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향후 학업성취인지도와 실제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많은 대학은 대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튜터링의 유형과 운영 전략의 개발 및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면 튜터링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대면 튜터링이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보다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여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기초로 대학의 튜터링 운영 전략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므로 간호대학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와 대면 튜터링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학습관련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를 파악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대면 튜터링에서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전공적응과 학업성취수준 향상을 위한 학습 튜터링의 대면 운영 방안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다양한 학습관련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K. M. Choi, M. J. .Kim, “The effect of the university s non-curricular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based on an educational community using e-learn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 pp.1283-1300,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1283

[2] J. U. Lee, M.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structional quality, motivation, and emotion in flipped learning college cla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0, pp.1263-1295,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0.1263

[3] Y. H. Lee, J. Y. Kim,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in distance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 pp.755-785, 2021.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2.755

[4] I. J. Song, S. H. Seo, “The effect of extracurricular program based on creative activity of the academic self efficacy and ego-resilience i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5, pp.187-205,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5.187

[5] Y. K. Kim, H. D. Song, “The effects of tutees perceived a tutor competency level on learning outcome in peer tutoring progra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5, pp.229-250, 2015.

[6] M. J. Kim, M. H. Kang,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variables and performance of college tutoring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8, No.2, pp.339-368, 2016.
DOI: http://dx.doi.org/10.17927/tkjems.2016.28.2.339

[7] C. J. Song, “The effect of peer-tutoring program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 pp.93-120,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93

[8] K. A. Yu, “Effects of peer tutoring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abilities and their learning

motivation", Wonkwang Journal of Humanities, Vol.18, No.2, pp.145-172, 2017.
DOI: https://doi.org/10.22845/wjoh.2017.18.2.006

[9] H. H. Jeo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purpose, difficulties, achievements, and improvements of peer tutoring at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tutor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31, No.4, pp.737-766. 2019.
DOI: https://doi.org/10.17927/tkjems.2019.31.4.737

[10] S. H. Hwang, "A systematic review of team creativity related research trends in Kore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7, pp.543-569,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7.543

[11] J. S. Kwag, S. H. Woo, "Effects of academic tutor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7, pp.272-281,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7.272

[12] E. C. Na, "Analysis of differences in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earning ability according to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peer tutoring and academic achievement",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4, No.2, pp.43-64, 2023.
DOI: http://dx.doi.org/10.18612/cnujes.2023.44.2.43

[13] M. H. Yoem, S. H. Park, J. W. Oh, "The effects of learning communitie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0, No.2, pp.1-26, 2012.

[14] Y. J. Lee, S. H. Cho, "College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a peer tutoring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6, No.2, pp.371-389, 2014.
DOI: http://dx.doi.org/10.17927/tkjems.2014.26.2.371

[15] S. A. Bae, S. R. Noh, "A study on the college peer-tutoring program based on tutors' experienc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4, No.3, pp.247-277, 2014.

[16] S. H. Jung, "A study on learners' experiences in reciprocal peer tutoring-based study group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4, No.2,pp.25-53, 2016.
DOI: https://doi.org/10.18230/tjye.2016.24.2.25

[17] J. A. Park, E. Y. Son, J. W. Moon, "A study of peer tutoring experiences in non-face-to-face situation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utors", Journal of Teaching & Learning research, Vol.14, No.3, pp.1-26, 2021.
DOI: https://doi.org/10.23122/kactl.2021.14.3.001

[18] G. Y. Park, J. M. Lee, "A qualitative study of online synchronous peer tutoring for freshmen at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tute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2, pp.583-605,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2.583

[19] S. I. Cho,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of classroom learning and on-line learning: A case study",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34, No.6, pp.23-39, 2020.
DOI: https://doi.org/10.34274/krabe.2020.34.6.002

[20] D. J. Lee, M. S. Kim,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23, No.3, pp.359-377, 2020.
DOI: https://doi.org/10.15702/mall.2020.23.3.359

[21] J. S. Yoo, S. H. Kang,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COVID-19 on grade and level of satisfaction by english tutoring program", 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27, No.3, pp.117-139, 2022.
DOI: https://doi.org/10.46449/MJELL.2022.08.27.3.117

[22] M. H. Kang, S. H. Yoon, H. J. Lim, Y. R. Yoo, "Identifying predicting power of metacognition, perceived interaction, presence on learning outcomes in web-based collaborative learning",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 Vol.8, No.2, pp.111-130, 2012.
DOI: https://doi.org/10.26857/JLLS.2012.08.8.2.111

[23] F. D. Fincham, K. M. Cain,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Vol.6, No.4, pp.301-333, 1986.

[24] Y. J. Park, K. H. Lee, H. S. Lee, "A comparative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lass satisfaction of college general mathematics according to face-to-face classes and remote clas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1, pp.324-336, 2022.
DOI: https://doi.org/10.5392/JKCA.2022.22.01.324

[25] Y. R. Kim, *An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contribution variables toward academic achievement,*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4.

[26] E. H. Chang, *Effects of self-evaluation using video recording method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y in basic nursing skills, satisfaction levels, learning motivations during open laboratory hours: focusing on foley catheteriz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ulj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27] S. A. Oh, "The analysis of epistemological beliefs, self-regulated learning and learning achievement based on the peer tutoring and individualize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6, No.4, pp.791-816, 2014.
DOI: https://doi.org/10.17927/tkjems.2014.26.4.791

[28] S. J. Lee. Y. K. Jang, H. N. Lee, G. R.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29] Y. S. Yang, G. R. Hwang,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types in tutoring programs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9, No.2, pp.89-113, 2018.
DOI: https://dx.doi.org/10.15854/jes.2018.6.49.2.89

[30] J. Y. Yeon, J. Y. Ahn, "Management state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offline extracurricular activities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3, pp.2245-2257, 20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2.3.156

[31] N. Y. Lee, J. Y. Han, "Effects of self-determinative motivation and learning participation on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 pp.455-467,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455

[32] M. K. Kang, I. K. Kim,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communication clarity,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self-determination learning motivation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Changes in teaching methods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7, pp.139-152, 2022.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7.139

[33] G. Park,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metacognition, learning flow,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ho studied off-line, on line class in COVID-19 pandemic sit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12, pp.205-213, 2023.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2.205

[34] H. J. Park, S. B. Cha, "The effect of self-efficacy for group work, learning strategy, intrinsic motivation on task persistence in the online learning commun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30, No.2, pp.186-209, 2022.
DOI: https://doi.org/10.22924/jhss.30.2.202202.008

[35] D. J. Oh, H. S. Hwang, "Changes in perceptions, behaviors, values, and attitudes of education caused by COVID-19", Social Studies Education, Vol.59, No.3, pp.223-250, 2020.
DOI: https://doi.org/10.37561/sse.2020.09.59.3.223

서 보 경(Bo-Gyeong Seo) [종신회원]

- 2011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만성질환

정 추 영(Chu-Young Jeong) [종신회원]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정신건강간호